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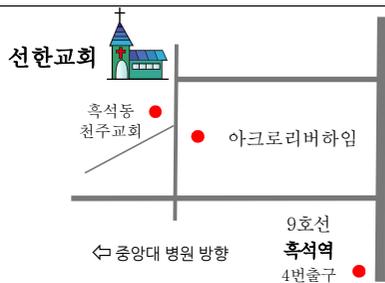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6)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7장 (통일찬송가 27장)

교 독 문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찬 양 과 경 배 510장 (통일찬송가 279장)

기 도 윤희중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후서 4장 1 ~ 10절

설 교 **복음의 광채가 비쳐진 사람**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성실한 목자가 되라 (잠27:23-27)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사무처리회** 임시 사무처리회 신임 안수집사(호칭장로) 선출 결과
후보 1 : 이태수 집사 -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후보 2 : 편도선 집사 -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2. **2022년 특별위원회** <2022년 인사위원회 명단>
윤희중(인사위원장), 조운익, 편도선, 심인섭, 김재준, 정진숙, 백미경, 이성범, 김명선, 배미자, 서진화, 정예영

<2022년 예결산 위원회 명단>
손영삼(예결산위원장), 박영근, 조계승, 구영서, 최영석, 오성애, 이용재, 강병국, 정구원, 전희영, 이소영, 김석범, 윤국로

3. **부서별 예결산 제출** 2021년 결산자료(대상: 교육부서 및 자치회, 영수증 포함)와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예결산안은 12월 19일(주일)까지 (재정부장 : 윤국로 집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안내**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 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5.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6. **코로나 19 기도제목** 1. 열방이 이상송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 하루 이 세상에 복음의 광채를 환히 비추는 삶이 되도록

찬송 :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통 325)

본문 : 창세기 39장 1~4절

말씀 :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마음 한 켠을 그늘지게 하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수많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가게 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 사회가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는 분위기의 문화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들려줍니다. 좋은 것만 모아 놓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한 실패와 실수, 연약함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저지른 실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원조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삭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드러내고 있는 편애의 문제는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가요.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세속주의적 사고를 가진 전형적 인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 부와 성공을 거둔듯해도 그에게서 벌어진 실패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틀어졌고 자녀들은 탈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는 서로 살인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가 거친 과정들은 절대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 절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패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인격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실패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이보다 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창 39장 2절)

조금 이상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한다면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고 애굽에서 자수성가하여 성공했다고 할 때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요셉이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는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통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만난 요셉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설상가상으로 누명을 쓰고 더 실패한 감옥의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요셉은 더욱 살아났습니다.

제목

복음의 광채가 비쳐진 사람 (고후4:1-10)

서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진 사람입니다.

1.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 (1)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음(1절,8-9절)
- (2)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음(2절)
- (3) 영광의 복음을 전파함(3-6절)
- (4)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함(7,10절)

본론

2. 교훈

- (1)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않는가?
- (2) 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있는가?
- (3)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결론

미혹의 영에 의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의 광채를 환히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환상과 질병을 통한 경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 날짜 : 12월 13일	
찬양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본문	욥기 33:14~33		
말씀요약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교만을 막으시고, 질병으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는 일천 천사 중 하나는 중보자로 나서서 대속물을 얻게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복하심은 사람들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계시 방식들 33:14~22 엘리후가 소개한 하나님의 계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자주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고난을 통한 회복 33:23~33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과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절목상	욥기 33:17 타락한 인가의 본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제일로 여깁니다. 좁은 생각과 제한적인 이해의 틀로 본 것을 하나님 뜻이라 단정 짓고,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리로 일반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모든 상황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몸부림치게 하소서. 결국 생명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304) 예수 하나님의 공의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은혜를 선포하는 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로운 길을 걷다 보면 다른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초대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소유물을 나눠 주는 운동이 불 일듯 일어났다. 구원을 경험한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이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그걸 지켜보는 이들은 구원의 메시지에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본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행 6:7)라고 증거했다. 내다 팔 만한 재산을 가진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신분과 관계 층을 뛰어넘어 소유를 나누는 사건은 최소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대단히 보기 드문 일이었다. 로마 제국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크리스천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 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만큼 크게 기여한 요인은 없을 것이다.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제 족속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아 준다”라고 말하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 간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했다. 공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 나누기	욥기 34:1~20		
목상포인트	‘엘리후’라는 이름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후는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며 변론했지만, 결국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친구 욥의 심적 고통은 더 가중되지만 했습니다. 엘리후는 그 이름대로 ‘나의 하나님’에 갇혀 ‘욥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는 말에서 엘리후의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나요?(4절)		
적용하기	고난 당하는 지체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진 않았나요? 지금 내가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 주며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율법적 공의가 아닌 사랑에 기초한 공의를 베풀도록 훈련해 이웃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불완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날짜 : 12월 17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욥기 36:1~15		
말씀요약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충고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의인에게 교훈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목상질문 1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 36:1~4 엘리후가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에 오류는 없는지 거듭 살필 부분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의 통치 방식 36:5~15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하지보다는 그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며 보듬을 지체는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36장 15절 인간의 마음은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훈련의 과정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경건한 사람이기 해도 환난의 줄에 얽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봅니다. 아프지만 고난으로 제 영의 귀가 뚫려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을 듣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곤고한 날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	날짜 : 12월 14일
찬양	찬송가 68장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본문	욥기 34장 1~20절		
말씀요약	엘리후는 함께 정의와 선을 가려내고자 합니다. '나는 허물이 없지만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는 욥의 말에. 엘리후가 욥을 악인과 한패로 봅니다. 그는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왕이나 고관이라도 지위나 외모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누구 말이 옳은지 검증하자 34:1~9 엘리후가 검증해 가려내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신다 34:10~20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변론하기 위해 어떤 근거로 제시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사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절묵상	욥기 34장 4절 사람은 재판관과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원합니다. 또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요, 죄로 인해 철저히 깨어진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재 '우리끼리' 도모하는 모든 행위는 철저한 실패로 귀결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가 곧 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때론 제 인생에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언제나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정의, 심판자의 전지하심	날짜 : 12월 15일
---------	-----------------------	--------------

찬양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본문	욥기 34:21~37	
말씀요약	엘리후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가 숨을 속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흘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 하게 임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대답이 악인의 대답과 같다면 그가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변호 34:21~30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모든 삶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결단 촉구와 욥에 대한 평가 34:31~37 욥에 대한 엘리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36~37절;1:8)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한절묵상	욥기 34장 29절 엘리후는 자신이 믿고 깨달은 바를 단호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포장된 그의 말 너머에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답은 상대방에게 상처만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긍휼이 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와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고전 13:2)	
적용		
오늘의 기도	이해할 수 없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에도 사람의 모든 걸음을 낱알니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몸과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제 삶을 내려놓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매일 Q.T.	높으신 창조주가 긍휼의 구원자심을 잊은 충고	날짜 : 12월 16일
---------	-----------------------------	--------------

찬양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본문	욥기 35:1~16	
말씀요약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의 의로움이나 악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욥의 악행과 공의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는 욥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헛된 것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셔서, 욥이 헛되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인간 행동이 하나님에 미치는 영향 35:1~8 높으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에 대한 엘리후의 논리는 L어떠한가요? 높으신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나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35:9~16 엘리후는 욥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의 외침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한절묵상	욥기 35장 12절 엘리후는 욥이 교만한 악인이기 때문에 한남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1:1) 우리는 때로 고난이나 형통의 이유를 죄나 성행의 결과로 단정 짓지만, 이는 설부른 판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입니다. 판단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제 의와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체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지체에 대한 정죄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구하게 하소서.	